

“점심은 도시락, 커피는 집에서” MZ ‘요노’ 열풍

YONO(You Only Need One)

식비 절감, 학생 구내식당 이용
저렴한 브랜드·구제의류 인기
다
가성비·실용성 높은 소비 선호
“경기·세대특성 따라 지속 전망”

#동구 중앙로에서 20년 가까이 구제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윤선미(49)씨는 “과거에는 손님들 중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면, 최근 1-2년 사이에는 10~20대 학생층부터 30대 직장인들까지 젊은 손님이 크게 늘어 젊은 세대를 위한 매장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 세대의 특성으로 선택의 폭이 다양한 구제의류에 대한 선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3시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중앙로를 찾은 김시현(26)씨는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의류를 구매할 때 유명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SPA(기획·생산·유통을 한 회사가 맡는 의류 브랜드) 제품을 자주 이용한다.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제품은 주변에서 구매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친구들에게 추천해주시기도 한다”며 “아낀 돈은 퇴근 후 여가생활에 투자하거나 자기계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MZ 세대의 소비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YONO(You Only Need One)’ 소비가 확산되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실용성에 집중한 선택을



지난 8일 찾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선호하는 것이다. 8일 찾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학생회관에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학생들로 붐볐다. 최근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두꺼운 과자(학생들이 입는 외투)를 걸쳐입은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과거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인기를 끌던 대학 인근 식당가도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음식 가격을 인상한 탓에 여전히 5000~6000원대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한 학생식당을 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준석(23)씨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

치 않은 대학생들이 1만원 이내에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식당만한 선택지가 없다. 과거에는 학교 앞 식당가에서 친구들과 점심식사 후 카페에 가서 공강시간(강의와 강의 사이의 빈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 요즘에는 집에서 커피 등 음료를 챙겨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용돈과 아르바이트 비용 내에서 전공서적 등을 사고 한달을 생활하기에는 식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러한 절약적 소비 패턴은 대학생들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으

로 월급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승환(26)씨는 “필요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고 적금도 매달 빠져나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식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 요즘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며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최근에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모은 돈은 필요물품을 구매하거나 모임통장에 예금해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가성비’ 좋은 SPA브랜드나 개성과 다양성을 앞세운 중고·구제의류도 ‘메이커’ 브랜드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지현(24)씨도 “충장로에 쇼핑을 가면 꼭 한번은 들르게 되는 곳이 구제의류 매장이었다. 가격이 저렴하고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도 많아 나만의 코디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저가의 생활용품물 살 수 있는 ‘천원샵 쇼핑’이나 중고직거래앱이 큰 유행을 끄는 등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하루 종일 돈을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와 최소한의 소비만 하는 ‘거지방 인증’도 SNS 내에서 유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의 특성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YONO’의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진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전 세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대부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젊은 세대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입과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등에 따라 소비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경기침체와 세대의 특성이 맞물려 ‘YONO’의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소비 경향이 빠르게 변모하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유행 등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싸움 말리러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영광군의원 벌금형

술집에서 시비 붙어 다투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40분께 영광군 소재 한 술집에서 영광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A씨는

같은 술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싸움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한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내년부터 법원 9급 공채시험에 지역 인재 우선 채용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9급 공채 채용 시험에 2025년부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제공 등 사법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단위 선발 방식으로 채용해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지역선발로 공백이 생기면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

인 및 저소득층과 등기사무·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 선발방식이 유지된다.

지역의 구분은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를 비롯해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 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이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될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수거차량 초등생 참변...유족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를”

도로·폐기물법 등도 개정 요구
“비통한 마음...비극 재발 안돼”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적용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처벌 규정 검토를 촉구했다.

10일 피해 초등생 김모(7)양의 유가족 김모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사고가 발생한 쓰레기장 앞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게 방치된 상태였고, 아파트 측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사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 김씨의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를 비롯해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폐기물 차량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이 원인이 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측이 설치한 쓰레기장 관리상 결함이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재해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시설 폐기물 업체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등 안전수칙 적용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진입해 사고를 내더라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사고를 낸 업체는 민간업체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아 3인1조 근무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32·33조 등에서는 인도를 6대 주차차금지구역 중 1곳으로 규정

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또 사설 폐기물 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수칙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49)씨가 몰던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양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는 후방경고음과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김양을 보지 못했다”고 부주의를 인정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교육청, 전국 교육청 평가서 최우수...특별교부세 확보

20개 지표 중 18개 기준 모두 통과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2024 사·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시책 추진 실적 정량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이 18개 지표 기준을 전부 통과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 교육부의 사·도교육청 평가는 주요 국정과제·교육개혁 과제로 ‘국가교육·책임돌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20개 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20개 지표 중 시범지표 2개를 제외한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

며 최우수 등급은 20개 지표 중 시범지표 2개를 제외한 18개 지표를 모두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자체 평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번 평가에 대응해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민현기 기자**